

주간 테러동향

Weekly Terrorism Trends

'23. 3. 3(금)

지역별 테러 동향

Weekly Terrorism Trends

유럽

- **英, 일반인 대상 '테러대응 훈련 프로그램' 활성화 노력**
 - 2.21 英 맨체스터市는 '17년 아레나 공연장 폭탄테러(20명 사망) 이후 개발되어 '일반시민 대상' 테러 관련 신고·대응·대피·구호요령을 교육하는 '테러대응 프로그램(ACT)*' 수료자가 1천명을 넘었다고 발표
 - * 'Action Counters Terrorism(ACT)'은 英대테러경찰이 주관하는 시민 대상 대테러 훈련 프로그램으로, 맨체스터市를 중심으로 시작되어 영국 전역으로 확대
- **英, 시민권 박탈 'ISIS 가담 여성' 항소 기각**
 - 2.22 특별이민항소위원회는 시리아로 출국해 ISIS 대원과 결혼한 「샤미마 베굼」에 대해 영국 정부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시민권을 박탈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同人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
 - ※ 시리아 난민촌에는 同人과 같은 영국 여성과 아이들 약 60명 체류
- **튀르키예, 이스탄불 폭탄테러 주모자 시리아서 사살**
 - 2.22 튀르키예 국가정보청(MIT)은 시리아 동북부 카미실리市에서 특수 작전을 전개해 이스탄불 폭탄 테러('22.11.13, 사망 6·부상 81)를 주동한 쿠르드노동자당(PKK) 소속 「할릴 멘시」를 사살
 - ※ 同人은 「알바쉬르」와 「하산」에게 테러를 지시하고, 「하산」의 해외 도주를 지원

미주

- **美, '아프간 동결 자금' 9·11 피해자 보상 사용에 제동**
 - 2.21 뉴욕 연방법원은 '21.8월 탈레반 재집권 이후 동결된 아프간 중앙은행 자산 70억 달러(前민주정부 명의)를 9·11 테러 희생자 보상에 쓰는 것은 美정부가 부정하고 있는 탈레반 정권을 아프간의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하는 셈이라며 보상 제한 판결
 - ※ 同법원은 "9·11 테러 보상 책임은 탈레반과 알카에다에게 있으며, 피해 보상을 위한 舊아프가니스탄 민주정부 명의 자금 사용은 불가하다"고 부연

- 美 국방부, '관타나모 20년 수감' 파키스탄 형제 본국 송환
 - 2.24 언론은 美 국방부가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에 20년 이상 수감된 「압둘 라바니」, 「모하메드 라바니」 형제*를 파키스탄 정부와 협의를 거쳐 본국으로 송환한다고 발표
 - * 「압둘」은 테러단체 알카에다의 조력자, 「모하메드」는 알카에다 지도부 자금과 이동을 돕는 역할로 '02년 체포 및 관타나모 수용소 수감
- 美, 펜타닐*을 테러 무기로 지정하는 법안 승인
 - 2.26 언론은 지난 24일 美 버지니아주 의회 상·하원이 펜타닐을 테러 무기로 지정하고, 고의로 펜타닐을 유통 또는 제조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승인하였다고 보도
 - *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로서, 완전치사량이 2mg 내외로 살상 목적 활용 가능

아 · 태평양

- 탈레반, 수도 카불內 ISIS 은신처 급습
 - 2.27 언론은 탈레반 보안軍이 전날 밤 수도 카불 북서쪽 케르 카나 지역의 ISIS-K(호라산 지부) 은신처를 급습해 무장대원 2명을 사살하고 탄약과 장비를 압수했다고 보도
 - ※ ISIS-K는 탈레반의 주요 적대 세력으로, 탈레반은 지난 14일에도 카불 동부지역에 있는 이들의 은신처를 공격해 3명을 사살하고 1명을 체포

중 동

- 이란, 테러혐의 이중국적자에게 '사형' 선고
 - 2.21 이란 법원이 反정부조직 '톤다르*' 수장 「샤르마흐드」(67세, 이란계 독일인, '20년 체포)에게 '08년 이슬람 사원 폭탄테러(사망 14명) 등 혐의로 사형을 선고하자, 독일은 “면회 거부 등 불공정한 재판인 만큼, 수용할 수 없다”며 강경대응 입장 표명
 - * '벼락'이라는 뜻의 이란어로 미국(LA)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슬람혁명 이전 왕조 재건을 추구하고 있어 '이란 왕조단(The Kingdom Assembly of Iran)'으로도 불림

'21년 나이지리아 잠파라주 여자중학교 집단 납치사건

- '21.2.26 나이지리아 북부 잠파라주 장계베 소재 국립여자중학교에서 소총으로 무장한 괴한들이 학생 279명(10세~17세)을 납치
 - ※ 당시 보코하람 등 나이지리아 무장단체들은 몸값을 노린 학생 납치로 수입을 벌어들였으며, '11~'21년 사이 나이지리아 정부는 몸값으로 총 1800만 달러 지출
 - 약 50명의 학생들은 침대 및 화장실에 숨어 납치범들로부터 탈출 하였으며, 무장 괴한들의 급습으로 인해 경찰 1명이 사망
- 사건 직후 「무하마드 알리드」 대통령은 “잔혹하고 가슴아픈 납치 사건을 종식시키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군대와 경찰은 지속적으로 납치범들을 추적할 것”이라며 성명을 발표
 - ※ 유니세프를 위시한 국제사회도 同사건에 대해 “비인간적이고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석방을 촉구
- '21.3.2 「벨로 마타왈」 잠파라주 주지사는 트위터를 통해 “몸값 지불 없이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게 석방되었다”고 발표
 - 또한, 잠파라주 경찰국장도 “정부 주도 평화협상으로 소기의 성과를 얻었으며, 경상을 입은 12명 정도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언급

< 보코하람(Boko Haram) >

- (결성) ‘서구식 교육은 죄악’ 이라는 뜻으로, '02년 「무함마드 유수프」가 조직
 - ※ 테러단체 지정 : 영국('13.7), 미국('13.11), UN('14.5)
- (핵심인물) 「바쿠라도로」(Bakura Doro, 現 최고 지도자)
- (연계세력) ISIS, 바쿠라그룹
- (활동지역) 나이지리아(요베·카노·바우치·보르노·플래토주 등 중·북부), 카메룬 북부, 차드 서부, 니제르 남동부 일대
- (활동수법) 對정부 게릴라戰, 마을 습격 및 민간인 무차별 학살
- (참고사항) '15.3 前 지도자 「아부바카르 셰카우」가 ISIS에 충성을 맹세하였으나, '16.8 ISIS가 「알 바르나위」를 신임 지도자로 임명하자 내분이 발생, 이후 「아부 바카르 셰카우」의 보코하람과 「알 바르나위」의 「ISIS-西아프리카지부」로 분열